Antimoon - 효과적인 영어 공부

http://www.antimoon.com/

1.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원문: What is necessary to learn English well?

영어 공부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어 공부법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영어를 잘 하려면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꼭 실천해야 하는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 매일 1시간씩,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문법과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보세요.
- 오디오북이나 다른 영어 테이프를 들으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수시로 멈춰가며 파악하고, 발음을 흉내 내세요.
- 영어의 "r" 소리를 매일 오후 연습하세요.
- 아주 주의 깊게 영어 이메일을 써보세요. 20초마다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고 실수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5분에 한 문장씩 만들어 가세요.
- 영어 문장을 읽을 땐, 생각을 하면서 읽으세요. "a" 대신 "the"는 쓸 수 없는지 질문해보고, 비슷한 문장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답을 알아보세요.
- 길을 걸어가면서 간단한 영어 문장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보세요. (주변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게 영어로 말해보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까요? 딱 한 부류의 사람뿐입니다. **이런 일들을 즐기는 사람이죠**. 영어를 잘하려면,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짜증 나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일에 매달려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어를 가르치고 배울 때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영어를 잘하고는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것은 싫어하죠**. (그래서 영어 강의를 신청하고, 강사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공부하려는 동기가 생기지 않으니, 스스로 공부하려 들지 않는 것이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꾸준히 못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험 보기 전에 12시간 동안 동사구를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30분 동안 영어책을 읽는 건 안 하죠. 영어가 즐겁지 않으니까, 꼭 필요할 때 말고는 공부하고픈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공부는 별 소용이 없고,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공부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r" 발음을 연습하거나 영어 문장을 매일 분석하려는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즉, 스스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합니다. 다행히 여러분의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vs 의욕적인 사람

폴라는 영어를 공부할 큰 동기가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가끔 의욕적일 때도 있습니다. 영어 시험 전날이나 회사에서 외국인 고객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날처럼요. 그럴 때면, "영어 공부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열심히 공부해도(시험 보기 이틀 전에 온종일), 점수가 안 나옵니다. 한 달이 지나기 전에, 공부했던 내용의 90퍼센트를 잊어버리니까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래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작동하는걸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번엔 **다른 타입의 사람**을 살펴보죠. 주디는 영어 학습자를 위해 특별히 쉬운 영어로 쓴 책을 매일 30분씩 읽습니다. 영영 사전도 사서, 책을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찾아봅니다. 처음에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책을 읽고 사전을 찾는 일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문장 하나하나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2주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 읽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책일 읽다보면, 2주 전에 공부했던 단어들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단어는 이제 사전을 찾지 않아도 되었고, 실력이 확실히 향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디는 그동안 영어 공부를 꽤 많이 해온 기분이 들었고, 앞으로

도 더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습니다. 매일 책 읽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배운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력이 는 것을 즐기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꾸준히 읽어온 덕분에, 잊어버리는 표현은 별로 없고, 어휘 실력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주디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곧 그녀는 영어 신문이나 영어권 독자를 대상으로 쓴 글도 읽게 될 것입니다.

즐거울수록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가 즐거우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또 꾸준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강한 동기가 주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표현과 문법 구조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흥미를 많이 느끼는 대상일수록 더 잘 기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에게 외우라고 시키면 절대 못하죠.) 이렇듯, 영어가 즐거워지면 그 혜택은 두 배가 됩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1 February 2009, at 06:24.

2. 영어를 공부하고픈 의욕 키우기

원문: Improving your motivation for learning English

이 글에서는,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는 기술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를 공부해왔고, 지금은 영어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영어 원어민들과 마치 우리말로 말하는 것처럼 영어로 대화를 나눈다고 상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영어를 잘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계 모든 사람과 영어로 메일을 주고받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영어를 잘해서 얻는 장점을 소개하는 글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안티문에서는 그와 관련한 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영어를 배울까요, 영어가 즐거울 때

영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어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이미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간단한 글은 영어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이제 더 큰 성공을 바라봅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습니다. 영어 실력을 놀랄 만큼 높여 봅시다.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어 방송을 알아듣거나, 책을 읽거나, 원어민과 편하게 대화하거나, 실수없이 편지를 쓰지 못한다면요.

자기 영어가 완벽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어 성적이 1등이라고 해도, 계속 자신의 약한 점을 찾고 보강하세요.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정도라면, 약점이 많진 않을 겁니다: 문장 부호, 드문 문장 구조, 희귀한 단어, "길거리 영어" 정도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여러분은 이보다 기초적인 부분이 약할 겁니다: 어색한 발음, 부족한 어휘, 현재 완료와 가정법 같은 문법 등.

가능하면 항상 영어를 사용하세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영어는 쓰면 쓸수록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영어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구글로 영어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미국 만화를 보거나, 컴퓨터로 어드벤처 게임을 하거나, 영어책을 읽을 수 있고, 그 밖에, 저희가 소개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 (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나,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더 많은 단어를 배우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영어를 배우면, 쓰게 되고, 또 배우면, 또 쓰게 되는 식입니다. 거기에 영어 공부법도 효과적이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영어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영어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보지요:

우리는 대개 흥미있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따분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따분하고 피곤해도, 내일 볼 시험은 꼭 통과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짜증 나는지 이야기하거나, 지금까지 배워온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우엔, 짜증만 더 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둘째 경우와 같이,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따분했던" 내용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야기해 볼만한 주제처럼 느껴지고 흥미가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영어 공부 중이라면, 영어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해보세요: Hi, I'm Studying English and I hate it. 아니면 우리말로: 있잖아, 오늘 단어 50개를 공부했거든, ...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근처에 친구가 없다면, 전화를 걸거나 메일이라도 보내세요.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별로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 테지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나면, 더 열정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를 찾으세요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과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딱 좋은 상황입니다.

- 서로 영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습니다.
- 친구와 서로 모르는 점을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더 쉬워집니다.
- 친구보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공부게 될 겁니다.:-)

영어 공부에 돈을 투자하세요

돈 주고 산 것은, 쓰고 싶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비싼 테니스 라켓을 사면, 매일 테니스를 하러 나가고 싶을 겁니다.

영어 공부도 마찬가지에요. 의욕을 키우고 싶으면, 좋은 사전도 사고, 영어책도 사고, 영어 방송이 나오는 케이블 TV도 신청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들였으니, 쓰고 싶어지고, 쓰다 보면 영어 실력이 느는 것이죠.

이 방법엔 단점이 있습니다. 효과가 길지 않지요. 며칠 지나면, 곧 흥미가 떨어집니다. 이대로라면, 매주 새로운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자극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숙어 사전을 사면 표현 몇 개 정도는 공부하겠지요. 그다음엔, 그 표현을 꼭 사용해보세요. 메일을 써보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 의욕이 높아지고(앞에서 말한 것처럼), 더 배우고 싶어질 겁니다.

앤서니 로빈스의 "무한 능력"을 읽으세요

앤서니 로빈스가 지은 "Unlimited Power: The New Science of Personal Achievement(한국어판, 거인의 힘 무한능력)"는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이 책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읽어보세요.

영어를 배우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선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 공부법에 관한 수백 개의 글을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도, 행동으로 옮기려면 어렵습니다. 사람은 게으른 동물이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저희가 소개한 공부법을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꿔나가야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5 February 2009, at 09:40.

영어를 연습하려다 영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원문: You can damage your English by writing and speaking

3. 연습이 영어를 망치는 경우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틈날 때마다 영어로 말하고 글을 쓰세요."라고도 말하겠지요. 영어 수업 시간에도 항상 말하기와 쓰기 활동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과서의 연습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말하라고 시킬 때, 그리고 작문을 하면서 문장을 만듭니다. 이 모든 활동이 영어를 잘하게 해준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연습이 도움될 때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꼭 필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학습자 대부분의 "말하기"와 "쓰기"는 "실수를 만드는 연습"**이라는 겁니다. 만드는 문장마다 다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영어로 말하고 쓰는 연습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면서 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한다면, 실수는 점점 고착됩니다. **말을 하고 글을 쓸 때마다,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서 잘못된 습관은 더욱 악화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영어로 이메일을 쓰고 있다고 합시다. 영어를 썩 잘하지 못하지만, 빨리 쓰고는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든 문장이 "I want speak English"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따라 읽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된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또 이메일을 쓸 때, "I want finish"나 "I want be happy"라고 쓰겠지요. 왜냐고요? "I want speak English"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I want 〈동사 원형〉"을 몇 번 더 쓰다 보면, 그것은 "고질적인 습관"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고착된 실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영어를 일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쓰면 쓸 수록, 나쁜 영어만 키울 뿐입니다**. 아무리 고쳐주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만 – 그래도 연습을 해야 느는 거 아닌가요?

말하기와 쓰기 연습으로 문법이나 어휘가 느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혼자서 새로운 단어를 습득할 수 있나요? "Good bye"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혼자 만들어 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오로지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영어 문장에 실수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문장을 만들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먼저 문장 만드는 법을 배워야지요. 그리고 그건 말하기나 쓰기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영어 문장을 우선 읽고 들어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말하기와 쓰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실수 없는 문장을 만들 실력을 갖춘 다음, 능숙함을 목적으로 연습하는 것이지요.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고 하지 않나요? 말하기나 쓰기 연습을 통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경우는, 누군가 실수를 지적하고 고쳐줄 때뿐입니다. 잘못된 문장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면, 그때 영어가 느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말하기를 통해 실수를 고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러려면 **실수를 고쳐줄 능력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 **영어 선생님**:
  - 첫째 문제로, **영어 선생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고쳐 줄 수 있는 문장은 한정돼 있습니다. 100개 이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문장을 지도받아야 합니다. 영어 수업시간에 말하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랫동안 집중적인 수업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장인이나 학생에겐 그럴 시간도 부족하지요.)
  - 둘째로, **선생님이 모든 실수를 교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게다가, 일부 선생님들은 (특히, 원어민이 아닌 경우) 실력이 충분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대로 쓴 문장마저 지적하거나 더 이상한 표현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 **원어민** (교사 제외): 이 부류는 미국인 친구, 호주 펜팔, 인터넷 게시판의 원어민, 그리고 현재 영어권 국가에 살고 있는 분이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원어민들은 여러분의 실수를 고쳐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서 이해할 만한 문장이라면, 문법이나 어휘, 발음 문제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글은, 뜻은 분명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 I am want make question for knowing how to able speak English proper way. I need of a internet learn book for American word of slang. I will thank your help for life.

왜 그럴까요?

- 일단, 많은 원어민은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예의 없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실수를 지적하다가 서로 어색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모른 척 합니다.
- 또, 사람들은 게으르지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실수가 많을수록 더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대화를 계속해나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먼저 공손히 부탁을 하면, 고쳐주기도 하겠지만(안티문 포럼처럼), 그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실수를 통해 배운다."라는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수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피드백을 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하루 24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실수를 통한 학습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실수를 할 때마다 (교정을 받든지 안 받든지) 잘못된 영어를 스스로 가르치는 꼴이 되니까요.

(관련 글: 외국어 학습에서 실수가 하는 역할, 실수는 나빠요)

해결책: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연습을 하다가 실수가 고착되는 이유와, 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습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관한 미칼 리샤드 보이칙의 이야기입니다:

>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영어 문장을 써 본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 많은 문법 구조를 알고 있지만, 그중에서 자신이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문장은, 항상 그 정확한 모습을 알고 있는 표현들과 닮아있습니다.** 항상 바른 문장만 따라왔기 때문에, 제 문장 역시 바를 수 있는 것이죠.
>
>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문장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전부 바른 문장이었지요.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서, 복잡한 문장을 더해갔지만, 그때도 제 문장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
> 이런 방식을 통해, 저는 나쁜 습관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습관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바른 문장만 따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문장을 쓰면 쓸수록, 올바른 습관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실수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수를 걱정하면서 어떻게 입을 열 수 있겠어요?”

먼저, 실수 없이 말하는 규칙을 주의 깊게 따르세요. 그래도 여전히 실수가 많거나(3문장마다 실수 1개꼴로), 규칙을 따르자니 말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은 입을 열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듣기와 읽기를 통해 입력을 더 받도록 노력하세요.

말하기를 통해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진짜 실력이 늘기 시작할 겁니다.

“실수 없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잖아요!”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실수를 거의 하지 않고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방법이요? 올바른 문장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고 모방을 하세요. 좋은 문장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올바른 문장만 읽거나 따라 하다 보면(책이나 사전, 원어민의 대화를 통해), 실수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말을 배울 때는 실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어 습득을 수영이나, 운전, 사업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은 다릅니다. 머릿속에 올바른 문장이 있다면, 그것을 흉내 내는 일은 쉽습니다(수영 동작을 따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지요). 언어에서 가장 따라 하기 힘든 요소는 발음입니다. (실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

“일부러 실수를 해도 괜찮을 때가 있나요?”

네. 때때로 틀린 줄 알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영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 그럴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원어민과 대화 중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걸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I'm not sure how to say this in English, but), ...”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문장을 이야기하세요. (아마도 틀린 문장이겠죠)
2. 그러면 상대방이 바른 표현을 알려줍니다.
3. 그 바른 문장을 공부하세요.

이 방법을 쓰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 상대방이 기꺼이 교정을 해줄 수 있을 때만 사용하세요.
- 어쩌다가 가끔 사용하세요.

발음 실수

지금까지 쓰기와 말하기가 여러분의 문법과 어휘력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논리가 발음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발음을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그냥 자기 식대로 발음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발음에 익숙해집니다. 잘못된 발음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틀린 발음이 습관으로 남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발음을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 공부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말하기가 연관됩니다. (책을 읽을 때조차, 머릿속으로 발음을 하니까요.) 그 말은, 잘못된 발음을 통해 스스로 나쁜 습관을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른 걸 배우기 전에, **특히 말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발음 공부를 하세요. 처음 입을 열었을 때에도, 말하려는 단어의 발음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문법이나 어휘와는 달리, 발음 공부를 하다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뇌와 근육이 새로운 소리에 적응을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연습이 필요하고, 대개 실수를 여러 번 거쳐야 합니다. 그래도 발음을 먼저 배워서 나쁜 습관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합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3 June 2016, at 16:05.

4.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

원문: How to avoid making mistakes in English

실수가 생기고, 또 고착되는 이유는, 1) 문장을 만들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2) 너무 일찍 문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실수 없이 말하고 쓰는 방법

1. **쉽게 말하기**. 초보자 중에 현재 완료나 가정문처럼 너무 복잡한 문장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실수를 하지요. 그러지 마세요! 말하기와 쓰기를 이제 막 시작한 수준이라면, 하고 싶은 말(복잡한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여러 번 봐서 문장)을 써야 합니다. 문장이 유치하고, 뜻한 대로 표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말을 배워야지요.
2. **천천히 그리고 주의 깊게**.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써야 합니다. 2시간 동안 문장 10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는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할까요?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하니까요. 계속 문장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사전 찾거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문장이 올바른지 확인하세요. 본보기로 따라 할 만한 문장도 찾아보세요.

   말을 할 때도,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한 다음 입을 열어도 괜찮습니다.
3. **정확한 표현을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 어떤 표현을 정확히 사용할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잘못된 문장을 스스로 가르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이나 인터넷을 검색해서 바른 문장을 찾는 것도, 말할 때는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제가 달라진다고 해도,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4.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쓰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문장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전의 예문을 참고하세요. 만든 표현이 올바른지 확신이 안 선다면, 구글로 검색을 해보세요. 일치하는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온다면, 아마도 그 표현은 맞게 쓴 표현일 겁니다. 사전과 구글을 항상 애용하세요. 문장 하나당 여러 번 검색해도 좋습니다(특히, 영어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글을 쓸 때 구글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세요.
5. **틀리기 쉬운 부분에 주목하세요**. 가끔, 영어가 한국어와 얼마나 다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말해 놓고 아무런 문제도 못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영어를 읽거나 들을 때, 어순과 관사, 전치사, 시제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말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사용하는 단어와 어순이 다를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틀리기 쉬운지, 어디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영어를 말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고 느리게 말하는데도 유창해질 수가 있을까요?"

유창해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단순한 문장만 써도 유창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연습을 할수록 점점 말하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톰은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꽤 유창해질 수 있었습니다. 불과 8시간이 걸린 겁니다.

저희가 볼 때, **정확한 문장을 천천히 말하는 것**이, **실수가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면, 천천히 정확히 말하다 보면, 쉽게 속도를 높여서 빠르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수를 많이 하면서 빨리 말하다 보면, 실수를 없애기가 어렵고, 결국 빠르고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톰이 경험한 실수 없는 글쓰기

얼마 전부터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이메일을 쓰고 싶었지만, 잘못된 문장을 만들어서 나쁜 습관을 들이기는 싫었습니다. 제가 처음 독일어 이메일 쓴 것은, 쉬운 독일어로 된 40페이지짜리 교재와 독일인 친구로부터 받은 이메일 몇 개를 읽고, 또, 몇 개월 동안 슈퍼메모로 작은 묶음을 공부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쓴 이메일에는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입력 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 제 이메일은 아주 쉬운 문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색입니다. 저는 모든 문장을 인터넷과 사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독일어로 '사용하다'라는 단어가 'benutzen'인 걸 알지만, "CD 복사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까?"라는 문장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몰랐습니다. 또한,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지 감은 오는데, 그 감이 맞는 건지 모를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인터넷이나 사전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문장마다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첫 이메일을 쓰는 데는 한 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사용한 문장 개수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글 쓰는 과정이 오래 걸렸고 어려웠지만, 재미는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쓰다 보니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가 더 생겼고, 독일어에 대한 흥미도 높아졌습니다.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즐거움을 준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쓰거나 말하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한 규칙을 따르는데도 말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면(문장 3개마다 실수 1개 이상), 당분간 **말하지 말고 쓰기 연습을 하세요**. 다음은 이에 관한 지침을 소개합니다.

1. **쓰기 먼저, 말하기는 나중에**. 쓰기가 말하기보다 쉬운 이유는, 1) 발음이 나빠도 상관없고(단, 철자는 알고 있어야겠죠), 2) 아무리 천천히 써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3)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문장을 충분히 빨리 쓸 수 있는 실력이 된 다음 말하기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 **말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어 음운을 공부하세요**. 영어의 모든 모음과 자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 다음에 말하기를 시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발음에 길듭니다.
3. **발음을 모르는 단어는 말하지 마세요**. 곧, 사용하려는 모든 단어의 발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음 실수를 하게 되고,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천천히 주의 깊게 글을 써도 문장 3개마다 1개 이상씩 실수를 한다면, **글쓰기를 당분간 중단**하고 읽기와 듣기에 집중하세요.

영어 문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많은 문장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영어 공부의 대부분은 듣기와 읽기가 돼야 합니다. 따라 할만한 문장을 많이 알고 있어야, 자신만의 문장도 만들 수 있거든요. 많은 문장을 머릿속에 흡수할수록,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의 수가 늘어납니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문장을 충분히 읽거나 듣지 않으면, 영어로 말하는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만들어 내지요. 그런 식으로 실수가 늘어갑니다.

영어 수업 중에 일어나는 일

안티문 공부법이 제안하는 영어 학습 순서는: '발음 – 입력(읽기와 듣기) – 쓰기 – 말하기'입니다. 그러나 영어 수업 시간에는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발음을 가르치는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충분한 입력을 주는 교사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말하고 쓰기를 강요합니다. 질문을 하고, 문법 문제를 내고, 작문 과제를 줍니다. 그렇게 실수를 만들도록 강요하면서, 나쁜 습관을 주입시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5 February 2009, at 09:10.

5.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원문: Why you shouldn't learn English by grammar rules

이 글에서는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했을 때의 예를 하나 보여준 다음, 왜 그 방법이 입력에 기반을 둔 학습보다 훨씬 비효과적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문법 중심의 공부

아래 내용은 영어 교재(“Workout Advanced”, 폴 래들리·캐시 버크 지음, 넬슨 영어 학습 출판)의 일부분입니다. 톰이 다니던 영국의 어학원에서 사용했던 책입니다.

> **제4과. 문법: 형용사**
>
> 두 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 앞에 쓰일 경우,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
> 주관 형용사: 일반적/구체적
> 묘사 형용사: 크기/나이/모양/색깔/국적/재료
>
> 예: They bought a lovely, stylish, large, old, rectangualr, brown, English oak table.
>
> **제4과. 연습 문제**(다음 페이지)
>
> 형용사를 명사 앞에 바르게 위치시켜 명사구를 만드시오.
>
> 예:
> beach — white, sand, soft --> a soft, white, sandy beach
>
> hotel — modern, large, expensive
> climate — sunny, warm, Mediterranean
> water — blue, clear, clean
> restaurant — international, open-air, clean
> rooms — spacious, comfortable, twin-bedded

이 교재는 형용사를 겹치는 순서(크기/나이/모양/색깔/국적/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예문 두 개를 소개합니다. 그다음 바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로 영어에 대한 감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예문을 고작 두 개만 보고 어떤 감이 생기겠습니까?). **이 교재는 학습자가 문법을 활용하도록 만듭니다.** 먼저 형용사를 분류한 다음에(“크기”, “나이” 등으로),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문법을 떠올리고(크기 - 나이 - 모양 - 색깔 - 국적 - 재료) 형용사마다 “크기·나이·모양·색깔·국적·재료”인지 분류를 한 다음,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겁니다.

형용사를 두 개 이상 사용할 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장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입력을 통해 배우세요. 형용사가 들어간 문장을 많이 읽으면, 형용사의 순서를 자연스럽게 감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외워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문장을 많이 접한 다음 그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입력”으로 공부하면 더 빠르고 쉽게 말하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입력을 통해 배우는 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영어를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로 공부한다면, 공부하고픈 동기도 생기고,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문법 대 입력 - 요약

문법으로 영어를 배우면 두 가지 단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 **기억의 한계**. 문법을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인위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를 외우는 것처럼요. 예문을 많이 읽고 머리가 알아서 적응하도록 하는 편이 쉽습니다.
- **시간의 한계**. 문법을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법을 떠올리고, 문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요소를 배열해야 합니다. 마치 수학 방정식을 푸는 것 같습니다. 문법으로 문장을 만들어서는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없습니다.

문법이 유용할 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주 접하지 못한 단어나 문법에 대해선, 자연스러운 감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완료 시제는("By 2050, life in Europe will have changed")는 책에서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읽기만으로 감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완료 시제를 자신의 문장에 사용하려면, **문법을 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밖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법 규칙이나 어려운 단어의 뜻도 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법이 영어의 감을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문법이 너무 많아지면 외우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기억의 한계). 그리고 여러 문법을 적용해서 문장을 만들려면 말하는 게 느려집니다(시간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지식 대부분은 (입력을 통한) '감'으로 파악이 돼야 합니다**.

드물게 사용하는 문법이나 단어는 암기가 필요하지만, 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법이나 단어도 "입력"을 통해 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어려운 문법과 단어를 담은 문장을 인위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미래 완료 시제를 공부하고 싶다면, 슈퍼메모에 미래 완료 시제를 사용한 문장 20개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슈퍼메모로 자주 반복을 하다 보면, 미래 완료 시제에 대한 감이 더 쉽게 자랄 수 있을 겁니다.

문법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영어를 배우는 많은 사람이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정확한 영어 표현을 알려주거나("big red car가 맞아요"), 실수를 지적하면("red big car는 틀려요"), 왜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엔 실질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대개 문법적인 설명("big red car라고 쓰는 이유는 크기 형용사가 색깔 형용사보다 앞에 오기 때문이에요")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문법은 "red big car"가 왜 틀리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원어민의 언어 습관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언어학자는 "red big car나 white small house라고는 하지 않는구나"라고 발견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원어민들이 문법을 공부해서 "big red car"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죠. 원어민이 "big red car"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문법이 생긴 겁니다. 원어민은 말을 창조해 냅니다. 문법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서 "왜 이 문장은 맞고 저 문장은 틀린 가요?"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왜냐하면 원어민은 이렇게 사용하지 저렇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일 것입니다.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따라 하세요**. 언어학자가 만든 법칙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을 따라가지 말고, 원어민을 따라가세요.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18 June 2016, at 15:28.

6. 입력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원문: Input - the only way to learn English

입력이란?

입력은 우리가 **듣고 읽는 모든 문장**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와 반대로 출력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문장을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언어 습득 모형

모국어를 어떻게 그토록 쉽게 배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말하고 싶은 게 생기면(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문장이 바로 떠오릅니다. 이 과정은 거의 무의식중에 일어납니다. 척하고 떠오르는 거지요. 그 문장을 바로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장이 어떻게 생각나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입력을 받습니다 – 많은 문장을 읽고 듣습니다. 그렇게 이해한 문장은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특정 부분에 저장됩니다.
2. 이제 무언가 말하거나 쓰려고 하면(출력을 하려고 하면), 뇌는 미리 저장된 문장을 검색해서 표현하려는 뜻과 맞아떨어지는 문장을 찾습니다. 그다음, 찾은 문장을 (똑같거나 비슷하게) 흉내 내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중에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모형에 대한 보충 설명

참 단순한 모형이지요. 실제로 뇌는 완전한 문장을 찾기보다 문장의 일부분(구문)을 찾습니다. 그렇게 찾은 부분을 서로 연결해서 복잡하고 긴 문장도 만들어 내는 것이죠. 뇌가 새로운 문장을 만들 때는, 한 번에 많은 문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뇌는 예전에 들어 본 문장 속에서 단어 하나를 뽑아 내고, 그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The cat is under the table"이라는 문장을 알고 있다면, "The dog is under the table"라거나 "The book is under the chair."라는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dog, book, chair 같은 명사를 알고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 단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The cat is under the big black table"처럼요.

더 복잡한 변형도 가능합니다. 다음의 세 문장을 알고 있다면,

> I like golf.
> I like fishing for salmon.
> Golf is relaxing.

아래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Fishing for salmon is relaxing.

위의 예에서, 동명사("fishing for salmon")가 일반 명사(golf)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문장은 앞서 알고 있던 세 문장과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설명한 언어 습득 모형은 스티븐 크래션 교수(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이해 가설** (또는 입력 가설)"로서, 그가 제시한 언어 습득에 대한 "자연적 접근법"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모형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아이는 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의 뇌에 쌓이는 문장이 많을수록, 아이가 만들어내는 문장도 완벽해집니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면, 이미 유창한 실력에 도달합니다.

이 모델은 모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울 때도 적용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 모델만이 언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 학습자가 주목해야 할 점

이 모형이 외국어 학습에 시사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뇌는 예전에 보거나 들은 문장(입력)을 바탕으로 새 문장을 만듭니다. 따라서 **외국어 실력이 늘려면 뇌에 많은 문장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글이나 말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문장은 올바르고 이해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외국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기 전에, 우리의 뇌는 먼저 올바른 문장을 충분히 많이 접해야 합니다.

- **출력(말하기나 쓰기)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너무 빨리 그리고 부주의하게 출력을 시작한다면 외국어를 망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출력 연습 없이 훌륭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 **문법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모국어를 배울 때 시제나 전치사를 따로 배우진 않지요. 외국어도 그런 식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여러분의 영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영어로 책을 몇 권 읽다 보면, 영어 실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책에서 접한 새 단어와 문법을 학교 작문 수업이나 이메일에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전하고 싶은 뜻을 담은 영어 표현이 쉽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단순 과거 시제와 "since"의 용법 같은 내용이 여러분의 일부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표현들은 애써 생각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올바른 구문들이 머리에 바로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영어가 쉬어질 수 있는 이유는, **뇌로서는 그저 여러 번 보아온 것들을 반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책을 한 권 읽는 동안, 뇌는 수천 문장을 접합니다. 그렇게 문장들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책을 읽으면서 "I felt bad"라는 표현을 50번이나 접했는데도, "I feeled bad"라는 잘못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실수를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다음번에 영어 시험을 보더라도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무엇이 맞는 답인지 "**느낌**"이 올 겁니다. 왜 그게 답인지는 몰라도 (어떤 법칙으로 설명하지는 못할 거에요), 답이 맞다는 것은 알 겁니다. 그동안 많이 읽어본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단어와 문법에 적용됩니다. 영어 책을 읽으면, 문법을 잊어도 됩니다. 문법책은 갖다 버리세요. 현재 완료 시제 몰라도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라는 말 자체를 몰라도 됩니다. 대신, 영어로 된 책을 몇 권 읽으세요. 머지않아, "I have seen Paul yesterday"라는 문장은 잘못됐고, "I saw Paul yesterday"가 맞다는 것을 느낄게 될 겁니다. 잘못된 문장은 잘못된 문장처럼 보일 겁니다. 왜냐구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둘째 문장은 192번 접했지만, 첫째 문장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외국어 학습자와 원어민의 차이를 아시나요? 원어민은 뭐가 맞는지 "느낌"이 옵니다. 문장이 옳은지 그른지(어색한지) 알려고 문법을 알 필요가 없지요. 그 이유는 살아오면서 계속 영어 문장을 듣고 읽어 왔기 때문입니다. **입력의 양이 다르다는 바로 이점이 원어민과 외국어 학습자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원어민처럼 되고 싶으면, 그만큼 많은 입력을 받으면 됩니다.

톰의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 마이클 스완의 'Practical English Usage (영어 문법과 용례에 관한 책)'을 처음 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즘이었는데, 저는 이미 영어에 능숙했을 때입니다. 그 책은 영어 문법과 용례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 below를 쓰고, 언제 under를 쓰는가?", 그리고 "must로 표현할 수 있는 뜻은 어떤 것이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문제마다 예문을 들어 바른 문장과 잘못된 문장을 보여주고, "under는 뭔가 위를 덮고 있어서 보이지 않거나 가려졌을 때, 그리고 서로 닿아 있을 때 사용한다."와 같은 규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
> 책을 끝까지 보면서, 페이지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잘못된 예문을 보면, "당연히 이건 틀렸지. 이상하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을 보면서는, "어? 이런 것도 문법이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지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아는 문법은 하나도 없었지만, 알아야 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다 알고 싶어도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었죠.) **저는 그저 문장을 보기만 해도, 자연스러운지 이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
> 원어민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고,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많은 입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영어 감각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무수한 입력을 통해 원어민에 가까운 실력을 얻은 사례는 많습니다. 미칼, 톰, 그리고 영어에 성공한 사람들에서 소개한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스티븐 크래션 교수의 학술적인 글에서도 이와 비슷한 두 흥미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8 August 2010, at 06:53.

7. 영어 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읽기 방법

원문: How to read English texts if you want to improve your English

내용 파악을 위한 읽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용 파악을 위해" 글을 읽습니다. 이 방식의 목적은 글의 주제를 최대한 빨리, 적은 노력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뇌는 최소한의 단어만 읽으며, 각 단어를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글을 읽을 때, 글이 쓰인 그대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I saw a magnificent picture in a book,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about the primeval forest.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in the act of swallowing an animal. Here is a copy of the drawing. In the book it said: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it. After that they are not able to move, and they sleep through the six months that they need for digestion."
>
> I pondered deeply, then, over the adventures of the jungle. And after some work with a colored pencil I succeeded in making my first drawing.

우리의 뇌는 다음과 비슷한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 Once when I was six years old I saw a magnificent picture in a book, called True Stories from Nature, about the primeval forest. It was a picture of a boa constrictor in the act of swallowing an animal. Here is a copy of the drawing. In the book it said: "Boa constrictors swallow their prey whole, without chewing it. After that they are not able to move, and they sleep through the six months that they need for digestion."
>
> I pondered deeply, then, over the adventures of the jungle. And after some work with a colored pencil I succeeded in making my first drawing.

"내용 파악을 위한 읽기"의 특징을 정리해봅니다.

- "문법적인 단어(a, the, in, of, through, that)"는 넘어가고, 내용을 담당하는 단어(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눈이 멈춥니다.
- 단어의 변형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look나 looked인지, has looked나 had looked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철자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뇌가 단어를 볼 때는, 단어 전체를 보는 것이지 글자 하나하나를 분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영어 원어민은 piece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보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도 peice라고 잘못 씁니다. 단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여기서는, primeval, constrictor)는 무시합니다. 굳이 사전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맹증(word blindness)"에 관한 분명한 예로, 다음 글에서 F가 몇 번 등장하는지 맞춰 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 FINISHED FILES ARE THE RESULT OF YEARS OF SCIENTIFIC STUDY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YEARS.

답을 보려면 마우스로 드래그하세요:

내용 파악을 위한 읽기는 적은 시간에 필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문법적인 단어가 내용을 **이해할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직접 문장을 **만들 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사나 전치사 같은 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올바른 문장을 만드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글의 첫 단락(영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은 (영어 실력이나 주의력이 아주 좋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음 빈칸을 채우기 어려울 겁니다.

> To accomplish this goal, your brain will try to read as ___ words as possible and spend only a fraction of ___ second ___ each word.

위를 예를 보면, 왜 어떤 사람은 3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기초 문법이 상대적으로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관사와 전치사가 왜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부분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영어 학습자에게 주는 결론은, 출력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문법적인 단어에 주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론 게시판에 '꿀벌 마야(Maya l'abeille)'라고 자신을 소개한 분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 올바르고 전형적인 영어 문장을 많이 접하는 것이 영어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낯선 문장을 만나면 읽고 또 읽어서 기억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멈춰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낯선 문장을 읽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
> 해리 포터 시리즈 전부를 단숨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다시 그 책들을 보니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간 좋은 표현들이 가득하더군요. 너무 아까웠습니다! 지금은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 방식으로 펭귄 리더스의 '풀 몬티(The Full Monty)'를 읽고 있습니다. 한동안 매일 책을 그렇게 읽고나니, 다른 글을 읽더라도 문장 구조가 꽤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 "어, 이거 전에 풀 몬티에서 봤던 거잖아!"
>
> 이렇듯이, 전 이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있습니다.
>
> 때로는 책 한 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단 한 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

저 역시 위에서 말한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 방식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어 책을 읽어야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1. 낯선 부분(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에서 멈춥니다: 새로운 단어, 단어가 쓰인 방식, 문법 구조, 전치사, 관사, 접속사, 어순 등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왜 전치사 at이 아니라 on이 쓰였는지 **잠시 고민해 보는 겁니다**. 또는 과거 시제를 써야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문장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를 쓴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단어 배열 순서가 모국어와 다른 부분도 있을 겁니다.

1. 문장에서 유용한 표현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와 비슷한 표현을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시제와 관사, 전치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순도 맞게 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읽은 문장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예문을 생각해 보거나 말해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능동적 어휘"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2. 필요하다면, 또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때라도, **사전**으로 단어의 뜻과 예문을 찾아보세요. 단어에 대한 감각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슈퍼메모** 사용자라면, 해당 표현을 묶음에 (문장 통째로) 추가해서 오래 기억하도록 하세요. 물론, 특별히 유용한 표현만 추가해야겠죠.

책을 읽다가 도중에 멈추는 것이 싫다면(사전을 찾거나 슈퍼메모에 추가하느라고), 낯선 문장을 옮겨 적어두거나,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항상 이 방법으로 읽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생각하며" 읽는 것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읽다가 지치는 기분이 들면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을 똑같이 집중해서 읽지도 마세요. 어떤 글에는(예, 길고 시적인 글), 쓸만한 표현이나 구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의 괴상한 비속어 같은 것도 실생활에서 거의 쓸 일이 없겠죠.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을 해도 모든 문장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그 문장들이 왜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지는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문장을 직접 만들 때, 신중을 기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적용 예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된 두 단락을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해볼 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will visit Venezuela next week to mediate talk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ts opposition, which have been locked in a power struggle since a failed coup.

- "Former President" - "The former President"가 아닙니다. 따라서 "The President Carter"가 아니라 "President Carter"도 맞겠지요. 하지만, 이름이 없을 때는 "The President will do something"처럼 쓰는 게 맞습니다.
- "to mediate talks" - "to mediate in the talks"나 이와 유사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 "power struggle" - 이 표현은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네요.
- "since a failed coup" - 이와 비슷하게 "He's been paralyzed since an accident"(전치사)로 쓸 수 있지만, "He's been paralyzed since an accident happened"(접속사)는 안 되겠군요.
- "since a failed coup" - "since the failed coup"가 아닙니다. 글쓴이는 독자가 쿠데타를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군요.
- "coup" - 발음은 [ku:]로 나죠.

Jennifer McCoy, of the Atlanta-based Carter Center, told reporters Saturday that Carter may be able to help break the political deadlock when he visits beginning July 6.

- "Jennifer McCoy of the Carter Center" - "Jennifer McCoy from the Carter Center"로 쓰진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John Brown of IBM"라고도 쓰겠군요.
- "Atlanta-based" - "based in Atlanta"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Wroclaw-based webmaster"가 되겠네요.
- "told reporters Saturday"라고 썼지, "on Saturday"는 아닙니다 - 경우에 따라 "on"을 생략할 수 있는가봅니다. "I met her Friday"나 "I met her on Friday"나 다 괜찮겠군요.
- "told that Carter may be able" - "told that Carter might be able"이 아닙니다. 간접화법이 쓰이지 않았어요. 영어 선생님은 "She said she might stay"라고 쓴다고 알려주었는데요 ("She said she may stay"아니라).
- "to help break the deadlock" - help가 목적어 없이도 쓰이나 봅니다("to help Venezuelans break the deadlock"가 아니라). 그리고 to도 없습니다("help to break the deadlock"이 아니라). force의 쓰임과는 다르네요("The President will force break the deadlock"아니라, "The President will force Venezuelans to break the deadlock"라고 써야 하니까요.).
- "when he visits" - 미래의 일을 나타내지만, "when he will visit"이 아니네요. 전에도 이런 문장에서 will을 쓴 건 본적이 없습니다.
- "to visit beginning July 6" - 구조가 흥미롭습니다. 저라면 "to visit on July 6"라고 했을테지만, 여기서는 beginning이 on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뉴스 보도에서만 쓰이나 봅니다.

항상 읽으세요

책 읽을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 어렵다면,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릴 때나, 버스를 기다릴 때나, 걸으면서도 읽으세요(어디 부딪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8 August 2010, at 07:04.

8. 어드벤처 게임으로 영어 공부하기

원문: Learning English with adventure games

어드벤처 게임이란?

어드벤처 게임은 영화처럼 진행하는 컴퓨터 게임입니다. 항상 줄거리와 주인공(예, 탐정이나 해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다른 점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직접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주인공을 움직이면서 게임 속 세상을 돌아다니고, 관찰하고, 만지고, 사용하고, 다른 캐릭터와 대화를 나눕니다.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뭔가 관찰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주인공은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에게 알려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어드벤처 게임이 영어 공부에 좋은 이유

영어 공부를 하려면, 영어 문장을 많이 보고 들어야겠죠. 어드벤처 게임이 여기에 딱 맞는 이유는, 게임 자체가 **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는 자기 혼자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다른 캐릭터와 대화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대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을 하는 동안:

- **좋은 영어에 익숙해집니다.** 어드벤처 게임을 하다 보면, 실생활에 쓰이는 회화를 아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TV처럼)은 아닙니다. 많은 어드벤처 게임엔 자막 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을 읽으면서 발음을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한 문장은 머릿속에 더 또렷하게 남고, 나중에 비슷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 **구어체 영어에 강해집니다.** 요새 나오는 어드벤처 게임의 캐릭터들은 모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말합니다. 또 영화보다 말을 알아 듣기가 쉽습니다. 게임에선 말이 빠르지 않고, 또렷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멈춰서 같은 부분을 여러번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드벤처 게임은 듣기 연습에도 아주 좋습니다.
- **발음이 좋아집니다.** 정확하고 좋은 발음을 듣다 보면, 자연히 발음도 좋아지죠.
- **공부하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어드벤처 게임을 하다 보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화를 알아들으면, 게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은 게임의 과제를 해결하고 유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영어 = 즐거움"이란 등식이 각인되면서, 의욕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드벤처 게임을 활용하는 법

어드벤처 게임을 즐기다 보면, 영어를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노력하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전을 사용**하는 겁니다.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낯선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세요. 게임 플레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 어휘를 늘리는 데도 좋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데 더 의욕적이라면, 등장하는 **낯선 단어를 전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슈퍼 메모에 추가해서 기억에 오래 남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발음을 공부하려면, 중간마다 게임을 멈추고, **대사를 따라해 보세요**. 영어 교재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효과도 있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은 영화보다 발음이 또렷해서 따라 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영어 회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자막 없이 게임을 해보세요**. 그러면 게임 플레이를 위해 음성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조롭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질 겁니다. 단,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화면에 단어가 보이지 않아서, 사전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듣는 것으로만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추천 게임

어떤 게임을 해야 할까요? 예전이라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루카스아츠가 만든 게임 전부. 루카스아츠의 게임은 구성이 절묘하고(헐리우드 영화보다), 유머가 넘치고, 그래픽이 아름답고, 음악이 감동적이고, 성우의 연기가 뛰어났습니다. 작품들은 놀랄 만큼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정신이 홀린 채로 게임 속 또 다른 세계에 빠져들 겁니다. 전 13살 때, 인디애나 존스와 최후의 성배에 나온 퍼즐을 이틀 동안 매달리다 풀었을 때 몸서리 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그림 판당고를 끝내고 눈물을 흘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루카스아츠는 2001년 원숭이섬 탈출이라는 어드벤쳐 게임을 끝으로, 그리고 1998년 그림 판당고라는 최고의 어드벤쳐 게임을 끝으로 제작을 중단합니다. 어드벤처 게임이 인기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는, 대화 중심의 게임은 거의 없어지고, 달리고 쏘는 게임만 많습니다. 그리고 루카스아츠의 텐타클 최후의 날이나 풀 트로틀 같은 게임은 요즘 나오는 커다란 LCD 모니터에선 엉망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텔테일 게임즈(Telltale Games)는 최근 **샘과 맥스(Sam & Max**:시즌 1과 시즌 2를 발매했는데, 각 시즌은 샘(양복 차림의 개)과 맥스(폭력적인 토끼)라는 두 캐릭터가 등장하는 5-6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습니다. 캐릭터와 유머 넘치는 줄거리는 루카스아츠가 만든 샘과 맥스:힛 더 로드(1993)와 동일합니다. 루카스아츠의 최고 게임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이 두 게임은 요즘 컴퓨터에서도 잘 돌아가는 3D 그래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음성 대화가 등장하고, 자막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샘과 맥스가 원어민도 낯설게 느끼는 특이하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surely the local lawbreakers must be missing our esoteric brand of personalized justice". 초급 수준의 영어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텔테일 웹사이트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 **루카스아츠가 제작한 마지막 3게임**은 640x480 해상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컴퓨터에서 (간신히) 플레이해 볼만합니다. 전부 음성 대화가 등장하고,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 그림 판당고 (Amazon.com, Amazon.co.uk)
  - 원숭이 섬의 저주 (Amazon.com, Amazon.co.uk)
  - 원숭이 섬 탈출 (Amazon.com, Amazon.co.uk)

  몇 가지 주의할 사항:
  - 윈도 XP와 비스타에서는 게임 바로 가기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을 선택한 다음, "Windows 95 호환"을 적용하세요.
  -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패치를 설치하세요.
  - 3D 게임을 할 때는(그림 판당고, 원숭이섬 탈출), 그래픽 카드의 안티 앨리어싱을 활성화해야 깔끔하게 보입니다. 원숭이 섬 탈출은 ScummVM을 통해 두 배 화면으로 플레이하세요. 화면이 많이 개선됩니다.
- 저같이 옛 게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루카스아츠의 오래된 게임**(320x200 해상도) 을 ScummVM 에뮬레이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텐타클 최후의 날이나, 풀 트로틀(Full Throttle), 더 딕(The Dig) 같은 게임은 시디로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게임들은 음성 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각본과 성우의 멋진 연기가 특징인 루카스아츠 최고의 게임입니다. 유튜브에서 풀 트로틀 인트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게임들을 할 때, 전체화면으로 놓고 멀리 떨어져 앉아서 플레이합니다. 긴 마우스 케이블을 사용해서 화면과 먼 곳에서 플레이하면, 깍두기 현상이 많이 줄어듭니다. 포켓 PC나 심비안 기기에 ScummVM을 설치해서 게임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 요즘 게임으로는 그나마 대화가 좀 있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 해 볼만합니다. 하프라이프(Half-Life), 바이오쇼크(BioShock), 매스 이펙트(MassEffect) 같은 게임들인데요, 대부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적을 죽이고, 아이템을 모으는 일을 해야 하지만, 때때로 다른 캐릭터의 음성과 비디오에 집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긴 하지만, 순수 어드벤처 게임에 비하면 모자른 편입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13 June 2011, at 06:29.

9. 입력이 재밌어야 하는 이유

원문: Why your input should be fun

꾸준함

영어 공부한다고 지루한 책을 읽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지루한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지루하면서 동시에 이해도 안 되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고문은 누구도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영어 공부에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며칠 동안은 버티겠지만, 한 달 이상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겨우 며칠 동안만 영어 공부를 하려는 건 아니시겠죠. 아마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잠깐씩 공부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규칙적으로 띄엄띄엄 공부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도 아실테고요. 생활의 일부분이 될 만큼 장기적으로 공부해야 계속 실력이 늡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푹 빠질 정도로 스릴있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받고 싶은 자료가 있어야 영어 실력이 매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공부해야 푹 빠질 정도로 재밌을까요?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The Simpsons, The Tonight Show with Jay Leno, 코엔 형제 영화, R.E.M., Pink Floyd, 공상 과학 소설, 루카스아츠 어드벤처 게임, Joel on Software, The Onion 등을 좋아합니다.

열성

여러분이 영화 매트릭스를 무척 좋아한다고 해봅시다(다른 영화도 상관없음). 매트릭스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아무 영화를 볼 때보다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장면마다, 대사마다 더 집중을 해서 봅니다(자막이 있다면 더 집중해서 읽겠지요). 그리고 문장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 낯선 표현이 나오면, 사전에서 찾아보고, 슈퍼메모 묶음에 추가합니다.
- 좋아하는 인물의 대사를 흉내 내면서 발음을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모피어스의 이런 대사, "Unfortunately, no one can be told what The Matrix is.")
- 좋아하는 대사를 혼자서 자주 반복해보면서, 대사 속 문장의 문법과 어휘를 계속 복습합니다.

영어를 대하는 태도

마지막으로, 입력이 재밌으면, 영어를 대하는 태도도 바뀝니다. 처음엔 영어를 필요악으로 느꼈을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책, 영화, TV, 웹사이트처럼 즐길만한 공부거리를 발견하면, **영어 공부가 일상의 즐거움으로 바뀌면서**, 흥미로운 책을 읽고, 멋진 영화를 보고, 자신과 비슷한 취향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재밌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공부가 쉬어집니다. 문법책을 읽게 돼도, 이젠 완전히 재미없어지지는 않지요.

내용, 아니면, 형식?

다른 글에서는 문법과 어휘에 집중하면서 읽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땐,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단지 즐기는 데 집중하라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는, 글의 내용이 주는 재미에 집중하세요. 항상 시작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내용이 일단 재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작을 한 뒤에는, 문장의 구조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세요. 단순히 내용만 파악하고 책장을 넘기지 마세요. 대신, 최대한 천천히 읽으면서 표현 방식과 문법 구조를 고민해 보세요. 문장을 따라해 보기도 하고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않았겠죠?

초보자일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영어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어휘력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경우, 책을 읽고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어렵겠지요. 내용이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입력은 소화할만큼의 새로운 표현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몽땅 새로운 표현뿐이면 입력의 의미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입력을 즐김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꾸준함, 열성, 영어에 대한 태도 개선이란 장점들이요. 해답은, 'Simplified book(국내에는 문고판형식으로 나오는 영어 소설들)'입니다. 영어 학습자를 위해서 유명한 책들을 쉬운 영어로 다시 쓴 겁니다. 수천 권이,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펭귄 리더스(Penguin Readers)가 유명하며, 세계 서점 어디를 가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초보자가 어휘와 문법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책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중엔 분명히 흥미를 끄는 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어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이 책들을 "멈추고 생각하며" 읽는다면, 실력이 놀랄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흥미를 끌 만한 입력의 예

영어 문화는 광대하고 풍부해서 즐길만한 자료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 책: 해리포터, 다빈치 코드, 반지의 제왕, 현재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
- Simplified book (위에서 설명)
- 여러분이 아는 원어민이 보낸 이메일
- 영화: 매트릭스,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슈렉, 현재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DVD ...
- 뉴스: 구글 뉴스, BBC, CNN, The Independent ...
- 영화 리뷰: Roger Ebert, IMDB ...
- 인터넷 게시판: 안티문 게시판, Europa, 구글 그룹 ...
- 어드벤처 게임: 그림 판당고, 원숭이 섬의 저주 ...
- TV 쇼: Tonight Show with Jay Leno, Late Night with Conan O'Brien, Saturday Night Live ...
- TV 시리즈: The Simpsons, Sex and the City, The X-Files ...
- The Good News Bible (쉬운 영어를 씀)
- IT 사이트: Joel on Software, Tom's Hardware, Wired News, CNET, Ars Technica ...
- 유머 사이트: The Onion, Dilbert, Something Awful ...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7 February 2009, at 13:25.

10. 단어의 정의보다 중요한 예문

원문: Example sentences in dictionaries: More important than definitions

영어 사전을 볼 때, 예문을 정의보다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정의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단어의 뜻을 알려주지요. 반면에, 예문은 다음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1. 정의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문장 속에서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장 요소들과 문법적으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 수 있죠.
3. 올바른 문장을 머리에 입력시킵니다.

정의 이해하기

단어의 정의를 확인한 다음엔, 그 단어가 들어 있는 예문을 읽어보세요. 문장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면, 단어의 정의를 잘 이해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surpass의 뜻이 "to go beyond in amount, quality or degree"라는 걸 아는 것도 좋지만, 예문으로 다시 확인하면 더 좋습니다:

> The results surpass all our expectations.

예문을 읽고 나면, surpass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고, 기억하기가 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의만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예문이 유일한 해결책일 때가 있습니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에서 뽑은 부분을 예로 들겠습니다(물론, 이 사전은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 **account for** - if a particular thing accounts for a part or proportion of something, that part or proportion consists of that thing, or is used or produced by it.

"That part or proportion consists of that thing"? 음, 뭔 소린지. 예문을 보면 뜻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 Computers account for 5% of the country's commercial electricity consumption.

문법과 용법

정의가 알려주는 단어의 뜻은, 글을 읽다가 단어를 발견하고 뜻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뜻은 그 단어가 가진 수많은 특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뜻뿐만 아니라, 문법 규칙도 있고, 같이 자주 쓰는 단어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서로 친해서 같이 쓸 때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suffer라는 동사는 전치사 from과 친하고("Alice suffers from insomnia"), 다른 전치사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 Lethal과 mortal은 둘 다 "치명적인"이란 뜻이지만, lethal injection이라고 하지, mortal injection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 major는 important와 같은 뜻의 형용사이지만, major는 항상 명사 앞에만 오기 때문에("Drug abuse is a major problem", "Religion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history of mankind"), "It is major to remember people's birthdays"라고 쓰면 틀립니다.
- Danger("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는 대개 in("Our lives are in danger"), with("The building is in danger of collapsing"), 또는 that-절("There's a danger that the plan will fail")과 함께 씁니다.

단어의 정의는 이런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문장을 만들려면, 예문들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사전에는 문법이나 용법에 관한 정보가 따로 나와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suffer에는 "+from", major에는 "ADJ + N"이라는 표시가 붙어서 용법을 설명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표시'들은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suffer의 뜻을 "고통을 느끼다"로만 안 상태에서 from이라는 전치사와 이어진다는 규칙을 보게 되면, 아주 논리적으로 "I suffer from doing homework"라는 어색한 표현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I suffer when I have to do homework"가 더 자연스럽지요. 그리고 짧은 예문 한두 개를 기억하는 것이(major problem, to play a major role), "major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뒤따라야 한다"처럼 추상적인 규칙을 외우는기보다 쉽습니다.

뇌를 프로그램하기

자기네 나라말을 할 때는 문법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다 맞는 표현이죠. 모국어를 하는 데는 특별한 지적 능력이나 기억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뇌에는 언어를 담당하는 특별한 모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듈은 읽고, 들은 문장들을 수집하고 가공해서 새 문장을 만들어 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말을 배웁니다. 처음엔 부모와 주변 어른들을 말을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흉내 내서 문장을 만들지요.

외국어도 같은 방식으로 습득됩니다.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많이 들을수록, 영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게 되고, 더 많은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안티문인 이것을, 입력을 통한 습득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븐 크래션 박사는 자연적 접근법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왜 사전에 나온 예문을 읽어봐야 하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문장을 읽어놓으면, **그 표현이 필요할 때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 것**이고, 그에 맞추어 여러분 자신의 새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지금까지 사전의 예문이 중요한 문법/용법을 가르쳐주고, 나중에 직접 문장을 만들 때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예문을 활용하는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shroud라는 단어를 찾는다고 합시다.

> **shroud** [(in) usually pass.] to cover and hide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자, 이제 shroud의 뜻을 파악했습니다. "감추거나 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로 수동형으로 전치사 in과 함께 쓴다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 shroud를 넣어 직접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I was hidden in the corner"라는 문장이 맞는다는 건 알지만, "I was shrouded in the corner"라는 문장은 올바를까요? 아니면, "The street was covered in darkness"라는 문장이 맞는다는 건 알지만, "The street was shrouded in darkness"라는 문장은 올바를까요?

아직까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cover나 hide와는 쓰임이 다를 것 같지만, 사전 정의만으로는 어떤 상황(맥락)에서 사용하는지는 모릅니다. **뜻만 알아서는 실제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문과 함께 살펴봅시다.

> **shroud** [(in) usually pass.] to cover and hide; "The hills were shrouded in mist. The whole affair was shrouded in mystery."

이 예문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sth is shrouded in sth라고 쓰지, sth shrouds sth라고 쓰지는 않네요. (이건 "(in) usually pass"라는 표시를 보고도 알 수 있지만, 예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죠)
- 물질(hills)과 비물질(affair) 모두에 'be shrouded in'을 쓸 수 있습니다.
- 감추는 주체가 안개나 미스터리입니다. "Shrouded in the corner"라고 하면 원어민한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네요.

이 정도 정보는 있어야, **실제 말과 글에서 shroud란 단어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 예문을 모방해서 "The negotiations are shrouded in mystery"나 "The street was shrouded in fog"라고 쓸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모방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문장을 만들다가 사전을 찾아서 예문을 확인했을 때), "입력을 통한 습득"을 통해 마법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작문 숙제를 하다가, 예전에 봤던 "shrouded in something"이라는 표현이 불현듯 떠오르는 때).

마치는 조언

1. 먼저, 예문이 풍부한 사전이 필요하겠죠. 사전을 두 개 이상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전에서 찾은 단어를 실제로 직접 사용해보고 싶다면, **예문에 특별히 집중하세요**. 나아가 외워도 보세요. 단어의 용법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비슷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입력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두뇌는 놀랄만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4 June 2016, at 17:17.

11. 토마스 쉬날스키

원문: Tomasz P. Szynalski

간단한 소개

제 이름은 토마스 P. 쉬날스키(Tomasz P. Szynalski)이고, 줄여서 톰이라고 부릅니다.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 살고 있습니다. 브로크와프 기술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1998년부터, 영어-폴란드 어 번역가, 영어 교사,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2000년에는, 미칼 리샤르트 보이칙과 함께 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습니까?

1. 초창기

영어 공부는 6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영어 수업을 들었죠. 효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숙제를 비롯해서 선생님이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습니다. 최소한, 눈에 띌만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어로 된 글을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고, 작문에는 실수가 많았으며, 발음은 나빴고, 말도 아주 느리게 했습니다. 8년의 희생이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은 컴퓨터 게임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1991년에 컴퓨터를 사준 뒤로,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루카스아츠에서 만든 인디애나 존스, 원숭이 섬의 비밀, 텐타클 최후의 날을 좋아했습니다. 게임을 하려면 영어 문장을 많이 읽어야 했고, 얼마 지나자 영어 문법에 대해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14살 때 영어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영어 수업이 아닌 게임 덕분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게임 속의 대화를 읽고 나니, 문법 시험을 볼 때 뭐가 답인지 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문법 규칙을 기억해야 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제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2. 동기 유발과 자기 주도적 학습

제가 영어를 진지하게 공부하게 된 것은, 자아를 계발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좋은 성적을 얻고, 보수가 높은 직업을 갖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덜 건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경쟁심이었죠.**

1993년, 브로츠와프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이 많았고, 일부 수업(수학이나 물리)은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첫 2년이 제 영어에 특히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반편성 고사에서도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는 항상 상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보이텍 쥐에르자노브스키와 미칼 리샤르트 보이칙(안티문 공동 운영자)이라는 두 인상적인 학생을 만났습니다. 보이텍의 미국식 발음은 훌륭했고, 미칼의 영어에서는 실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어휘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전이 별로 탐탁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싫었습니다. 다른 애들이 저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사실이 싫었습니다. 6살 때부터 영어 수업을 들어온 저보다 실력이 더 좋다니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뒤처질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당시 영어를 담당하던 야누슈 라스코쉬 선생님의 조언을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영영 사전을 샀고, 사전에서 쓰는 발음기호를 공부했습니다. 집에서는 **발음 연습을 하면서**, full과 fool처럼 비슷한 단어들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음은 점점 좋아져서, æ(cat의 모음), ə(away의 첫 모음으로 슈와라고 부르기도 함)도 잘 발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영국식 발음이 실질적인 표준 영어 발음이지만, 보이텍과 미칼, 그리고 저는 미국식 발음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인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재밌기도 했고, TV나 영화에서 미국 영어를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북(라스코쉬 선생님이 준 "Shaggy Dog Stories")을 들으면서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미국 방송을 봤습니다**(CNN International, Cartoon Network). 시간이 흐를수록 구어체 영어에 적응해갔습니다. 직접 사용할만한 표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특이하게도 미국 선생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사이사이에 그분들에게 찾아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업이 널널한 땐, **그분들과 45분씩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서로 떠들고 있었지요. 영어로 말을 할 때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실수를 피했습니다.

이렇게 서너 개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 입을 여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딱 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때가 많았고, 가정이나 과거완료, as if 구문은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글 쓰는 실력은 엉망이었지요(글을 쓰는 것은 말하기보다 더 높은 어휘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어린 아이처럼 들리기는 했어도, 큰 실수 없이 꽤 괜찮은 발음으로 기본적인 뜻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는 동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쟁심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했지만, **저 자신이 발전하는 모습**과 영어가 저에게 열어준 가능성을 즐기는 것이 주된 동기가 됐습니다. 미국인과 똑같이 발음을 하고, 새로 익힌 표현을 써보고, 외국 방송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3. 읽기와 슈퍼메모로 향상된 영어 실력

고등학교 때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보이텍과 미칼이 영어 공부에 사용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슈퍼메모였습니다. "단어를 외우는 비법이 있을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appalled나 streamline 같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었던 거야!"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의 "비밀 병기"에 관심이 갔습니다. 그러나 의욕이 부족했습니다. 슈퍼메모를 사용하려면 단어, 발음 기호, 예문을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기는 했지만, 꾸준하지는 못했습니다.

1994년 여름 방학부터 공상 과학이나 스릴러 소설 같은 책을 영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라스코쉬 선생님이 권유도 해주었고, 미칼과 보이텍도 영어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막 고등학교에 1학년), 미국이나 영국 작가가 쓴 작품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영어 소설을 즐겨 읽는다는 사실을 저희 부모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TV나 실제 대화를 통해 들었던 영어가 문어체 영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작가들은 "wipe them frequently using a stubby gloved finger"나 "the final scurrying about had reached an almost unbearable frenzy" 같은 문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고, 단어를 외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같은 단어를 여러 번 찾는 때도 있어서, 신경질이 났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확실히 외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1995년 2월, **슈퍼메모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적인 진전이었습니다. 책에서 찾은 많은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새 단어를 묶음에 채워 넣었습니다. 슈퍼메모는 효과가 있어서, 오늘 30단어를 추가하면 한 달 뒤에도 그 30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치 풀로 붙여놓은 것 마냥 단어가 머리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표현을 공부했고, 잊어버리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지식은 줄어드는 법이 없이 계속 커갔습니다. 2년 후, 제 묶음엔 영어 단어 3,000개가 발음과 예문과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슈퍼메모로 9년 동안 공부한 경험에 관한 글)

많은 독서량과 슈퍼메모 덕분에, 어휘는 저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습니다. 이젠 (원어민이 아닌) 영어 선생님이 알려주는 단어 중엔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질문이 생기면, 선생님 대신 저나 미칼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이 우리를 시기하는 것도 눈치 챘습니다.

4. 유창해진 말과 글

1995년 말,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수업이 끝나면 대학 화학 실에 있는 작은 컴퓨터 실에서 인터넷을 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만들고 **영어로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수없이, 어려운 단어로 복잡한 문장을 만드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초기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년이 후 폴란드에 전화 모뎀이 보급되고 나서, 미칼을 설득해 서로 영어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1997년쯤, 미칼과 저는 영어로만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사이사이에 우리 둘은 **영어로 대화하면서 수천 시간을 보냈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영어로만 대화하는 것에 금방 익숙해져서, 예전에 폴란드 어로 이야기하던 때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영어로 완전히 전환하는 데는 큰 용기가 있어야 했지만, 영어 대화는 당시에 제가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땐 이미 어휘나 문법, 발음이 모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건, 유창함이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주저 없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우리의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98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전국 영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모두 25,000명의 참가자 중에서 7등을 했습니다. 2년 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작은 대회에서는 쉽게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제 영어 공부는 저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영어는 매일 사용해야 하는 일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2의 모국어"라고 할까요. 이메일의 90퍼센트 이상을 영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는 15-20개의 영어 사이트이고, 폴란드 사이트는 얼마 없습니다. 이젠 영어로 말을 하면서 사전을 찾지 않게 되었고, 미국인과 아주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인들마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영어를 통해 무엇을 얻었습니까?

- 영어를 통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인사의 비디오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어떻게 고칠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휴가는 어디로 갈지, 어떤 물건을 살지 등에 대한 더 좋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에게 인터넷이 얼마나 제한적일지를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 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곳과 토론 게시판에 제가 쓴 글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을 받은 전 세계 모든 사람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과학, 철학,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아왔습니다.
- **폴란드 어로는 경험할 수 없는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Futurama,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 The Office, Northern Exposure*, YouTube 동영상, Reddit이나 The Onion같은 웹사이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같은 폴란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재미를 놓치고 있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 더 재미있습니다.** 번역은 대개 정확하지 않고, 축약돼 있거나(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제작된 DVD조차 번역이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폴란드 어로 번역된 것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 원본의 5-10퍼센트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 **영어권 국가에 가서 편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 번 원어민으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 **영어로 수입도 생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컴퓨터 책 두 권을 번역했습니다(Using Windows 98, C Primer Plus). 현재는 번역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5 February 2009, at 09:47.

12. 영어를 배울 때 직면하는 세 가지 어려움

원문: Three biggest challenges facing an English learner

1. 영어를 배우려는 열정을 갖기

누구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대에 부풉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어를 공부해나가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어는 의무입니다. 해야 하지만, 하고 싶지는 않지요. 영어 배우면서 어떠한 즐거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영어를 잘하고는 싶지만,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이것이 첫째 난관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 영어 실력이 늘 리가 없지요. 영어를 사랑하지 않으면, 영어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영어에 성공하려면,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영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을 놀이나 휴식을 위한 시간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어 문장을 읽고 그 구조에 대해 고민하기
- 사전을 찾아가면서 새 단어를 공부하기

- 사전이나 문법책,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확한 영어 문장 만들기
- 영어의 음운과 단어의 발음을 연습하기

영어를 취미로 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영어를 즐기는 사람이 되세요.

2. 생활을 바꾸기

영어를 배우려면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영어책을 읽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지키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영어 공부가 재미없을 때는 더 그렇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매일 15분씩 공부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온종일 공부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입니다.

3. 생활을 더 바꾸기

처음 생활의 일부를 바꿀 때도 어렵지만, 그 다음 변화도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첫 단계(예를 들어, 매일 영어책을 읽는 것)에 머무릅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다른 활동까지 뻗어나가지 못합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다양한 활동을 마련해서 (책 읽기, TV 보기, 발음 연습, 오디오북 듣기)상황에 따라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 금방 질리고, (2) 영어의 특정한 분야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책을 읽는 것은 문법이나 어휘, 독해력, 작문 실력은 향상시켜주지만, 발음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1 February 2009, at 06:24.

13. 영어 수업을 싫어하는 이유

원문: Why we don't like English classes

사람들은 대개 영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영어 강의가 너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동적입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 영어 강의를 신청하자. 수강료도 내야지. 일주일에 몇 시간씩 강의를 듣고 나면, 실력이 좋아지겠지."

영어 강좌를 듣는 것은 정말 부실한 공부 방법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게 놀랍습니다. 영어 수업을 평생 들어오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영어 수업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이미 어떤 수준인지 다 아는데, 영어 강의로 영어를 정복했다는 사람을 보면 놀랄 일이지요.

영어 강의를 듣으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씩 투자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들죠. 그 시간과 돈을 들여 무엇을 얻습니까? **영어 강의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봅시다.**

- **나쁜 영어를 듣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때론, 선생님들의) 발음, 문법, 어휘를 듣는 일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때론 이 정도로 나쁘거나, 더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어를 듣는데 어떻게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 **영어 문장 5개 말하기.** 보통 10-20명 정도가 수업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말하는 시간은 제한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어 수업은 말하기 실력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전문적인 회화 수업은 괜찮지요).
- **지루한 교재 읽기.** 모든 수업에는 항상 교재를 사용합니다. 왜냐구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교재에 나온 대로 따라가지요. 그런 수업은 **지루하고 비효과적**입니다. 마이클 잭슨이나 아프리카 밀림에서 2년 동안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같은 이상한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고, 토론을 하죠. 이게 뭔 짓입니까? 별 관심도 없는 것들을 왜 공부해야 합니까? 덕분에 영어는 지루한 과목이 돼버렸습니다.
- **문법 배우기.** "현재 진행형은 진행 중이거나 변하고 있는 상황에 사용한다.", 이런 거죠. 문법 공부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아무리 해도 그 많은 문법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2) 말할 때는 문법을 떠올릴 시간이 없습니다("어떤 시제를 써야 하지? 어디 보자…. 현재까지 진행돼온 일을 나타내고 싶으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겠구나.").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문법 공부로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있어도, 영어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 **문법 문제 풀기**. 문법 공부를 한 다음에는, 문제를 내줍니다. 객관식 문제나, 빈칸 채우기 같은 거죠. 문법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문법을 복습. 2) 영어 실력 검사. 첫째 목적은 문법 자체가 쓸모없으니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습니다(위에서 설명했죠). 둘째 목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로 영어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 **숙제하기**. 대개 문법이나 작문 문제를 숙제로 내줍니다. 작문 주제는 별 관심이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Blood is thicker than water)"라는 속담이 지니는 가치를 설명하시오."처럼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지루한 일들로는 영어 실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의욕 상실을 불러옵니다.

영어 수업으로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준의 좋은 발음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영어 선생님 대부분은 발음 부분을 그냥 무시합니다. 때로는 선생님 자신의 발음이 나쁠 때도 있지요. 잘못된 발음을 지적해주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선생님은 별로 없습니다. 영어 음운을 소개해주는 분은 극히 드물고, 사전으로 발음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 대부분은 영어 소설을 읽고, 영영 사전을 구입하고, 오디오북을 들으라는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교재를 공부하면서 문제만 풀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영어 수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수업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겹고 비효과적인 수업을 듣고 있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지금도 수 많은 사람이 실력 향상 없이 영어 수업을 들으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따분하고 효과 없는 수업 대신에 진짜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영어 수업 시간에 나쁜 영어를 듣는 대신, 텔레비전을 켜고 CNN International 같은 방송을 들으세요. 정확하고 완벽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 고작 5문장을 말하려고 수업을 듣지 말고,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전문 회화 수업을 수강하세요. 아니면 친구들과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 따분한 교재로 공부하지 말고, 재밌는 글을 골라 읽으세요. 찾아보면 영어로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이 많습니다. 영어로 된 사이트도 구경하세요.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읽으세요. 절대로 지루해지지 않는 것으로요.
- 문법을 외우고 문제를 푸는 대신, 읽고 듣는 것에 더 투자하세요. 입력에 기반한 공부법만이 유창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를 습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 선생님이 내준 작문 숙제를 하는 대신,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글을 써 보세요. 예를 들어,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 보세요. 선생님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세요!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5 February 2009, at 09:57.

14. 영어를 배우는 이유

원문: Why learn English

영어를 배워서 유창해지는 일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 즐겁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이 영어를 할 때마다 주변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요? 경력의 큰 진전을 이루며, 다른 사람보다 한참 앞서가는 일은요?

영어를 잘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정보에 접근하기

여러분은 무엇에 흥미를 느낍니까? 과학? 음악? 컴퓨터? 건강? 비즈니스? 스포츠? 현대 대중매체(인터넷, 텔레비전, 언론)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주제에 대해 무한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바로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 대부분이 영어로 돼 있다는 것이죠.

영어를 할 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넷의 있는 웹페이지 대부분**. 10억 페이지가 넘는 양입니다! 외국어 하나만 배우면 인터넷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 **책**(어떤 주제든지, 어디서 만들어졌든지). 영국이나 미국 작가가 쓴 책과,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책.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모든 주제의 책을 영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언론**. 영어로 된 신문이나 잡지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있습니다. 타임이나 뉴스위크,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을 찾으러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 **과학**. 과학 분야에서 영어는 필수입니다. 1997년, 과학 기술 논문 인용 색인(Science Citation Index)의 95%가 영어로 쓰였습니다. 그 중, 50%만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영어권 국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처)
- **뉴스**. CNN International이나 NBC 같은 국제적인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보다 더 빠르고 전문적인 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방송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와 소통하기

영어를 "소통을 위한 언어"라고 부르고 싶네요. 왜냐구요?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는 약속이나 한 듯이 영어를 사용하거든요.

- 1,500,000,000의 사람이 영어를 사용합니다. 추가로 1,000,000,000명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출처)
- 전 세계 모든 엽서와 편지의 75%가 영어로 쓰여있습니다. (출처)
- 국제회의와 시합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합니다. 올림픽이나 미스 월드 선발 대회가 대표적이지요.
- 서로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과 정치인들이 만나면 영어로 대화합니다. 영어는 유엔과 나토, 유럽자유무역 연합의 공식 언어입니다.

따라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 **전 세계 사람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토론 게시판에 올릴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 **편하게 여행하세요**. 어디를 가든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처). 길도 물어보고, 말도 걸어보고, 도움도 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릅니다. 영어가 생명을 구할지도.

자신의 몸값 높이기

비즈니스, 기술, 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한다면,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미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를 할 줄 안다면:

- **이력서에 "영어 능력 우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적인 정보 얻기**. 영어는 기술 분야에서 자주 쓰는 언어입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이나 유전자, 의약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술 관련 서적을 읽으려면, 반드시 영어를 익혀두어야 합니다.
- **컴퓨터 배우기**. 컴퓨터 관련 글을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써볼 수도 있지요.
- **세계로 사업을 확장하기**. 당연한 사실입니다. 국제적인 사업은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사업은 국제적입니다. 따라서 국제 시장에서 사업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합니다. 업체에 전화하고, 회의에 참가하고, 경제 전문지와 잡지를 읽어야 합니다.
- **더 능력 있는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과 연락을 하고,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국외 학술 단체를 방문하세요. 논문, 책, 잡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 **컴퓨터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대부분은 영어로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더 잘 다룰수록 경쟁력이 생깁니다.
-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하기"라는 소제목에서 이미 그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문화 즐기기

영어만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언어는 없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안다면:

- **미국과 영국 영화를 원본 그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빙한 영화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 **위대한 명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은 영어로 쓰였거나, 영어로 번역돼 있습니다. 그 수도 엄청납니다. 햄릿 같은 고전부터 쥬라기 공원 같은 현대 스릴러물까지 다양합니다.
- **음악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가사가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안다면, 음악은 더 풍부해집니다.

영어는 배우기 쉽습니다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유용한 언어일 뿐만 아니라,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 중의 하나입니다.

- **간단한 문자**: 독일어나 폴란드, 러시아 어처럼 이상한 문자가 없고 아주 단순합니다.
- **쉬운 복수형**: 명사에 s만 추가하면 되지요. One car, five cars; one telephone, two telephones... 예외는 극히 일부입니다.
- **익히기 쉬운 단어**: 프랑스 어에는 **la** fille, **le** chien, 독일어에는, **das** Mädchen, **der** Hund가 있습니다. 영어에는 a girl, a dog뿐입니다. 더 알아야 할 건 없습니다.
- **짧은 단어**. 기본 단어들은 짧습니다: run, work, big, go, man. 긴 단어들은 짧게도 쓰입니다: sitcom = situational comedy, fridge = refrigerator, OS = operating system. 말하는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 **단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에는 한 단어가 여러 모습으로 바뀌죠.

  영어: The man is blind.
  독일어: Der Mann ist blind.

  영어: This is a blind man.
  독일어: Das ist ein blind**er** Mann.

  영어: I see a blind man.
  독일어: Ich sehe ein**en** blind**en** Mann.
- **다른 사람은 다 "you"입니다.** 친구한테든지 선생님한테든지 "Do **you** speak English?"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지기도 하죠. 영어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 **영어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영어 방송과 음악, 웹사이트, 잡지는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따분한 교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를 즐기면서 배우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영어를 자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용할수록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거든요.

만족감

영어는 단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큰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 **실력이 느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미국 방송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됐을 때의 기분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 **영어 공부가 즐거워질 겁니다.**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완벽해지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영어를 말하고 쓸 때마다, 영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니까요.

영어로 더 능력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영어 덕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아주 많습니다.

안티문을 통해 여러분도 이런 만족감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저희의 방법에 따라 공부하면서, 영어 실력이 향상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영어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섹션에 그러한 경험을 모아놓았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 March 2009, at 04:19.

15. 발음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원문: Why you should study English pronunciation

첫인상

영어에선 발음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보지요:

> 원어민(미국인)이 진행하는 회화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영어 잘해요? (So, do you speak good English?)". 톰이 "그런 거 같아요(We think so)"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들리네요(It sure sounds like you do)"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3단어만 말했는데도, 선생님은 벌써 영어 실력이 나쁜지 좋은지 파악했던 것입니다. 왜 선생님은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어려운 단어를 써서 대답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럼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썼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바로 발음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나서 고작 두세 문장만 들어보고, 어휘나 문법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발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음에 따라 영어 실력을 짐작합니다. 바로 발음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영어 공부를 할 때 발음을 제일 먼저 익혀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단어들로 필요한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문법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도 필요한 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간단한 발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좋은 발음이 아니면, 전부 나쁜 발음입니다.

그리고 나쁜 발음의 결말은 끔찍합니다. 단어와 문법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만든 문장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sleep을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한다면, 그리고 ghost를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한다면, 원어민은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sleep의 ee 발음과 ghost의 o 발음은 실제로 sleep과 ghost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에 익혀두어야 합니다.

발음과 관련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톰의 친구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와서 한 말입니다.

> 미국인한테 말을 할 때마다, 매번 나에게 "What? What?" 거리더군. 난 했던 말을 하고 또 했지. 한참 후에, "Ah-ha!"하고 알아들은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말해주는데, 내가 말했던 것과 똑같은 문장이었어. 엄청 창피했지. 어휘나 문법에는 문제가 없는데도 못 알아들었던 거야. 발음이 문제였거든. 영어를 확실히 배워보자는 욕구가 치솟았다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합니까?

영어를 배우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발음은 배워서 뭐해. 말만 통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영어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 여러분의 선생님은 나쁜 영어를 수년 동안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보통 원어민보다 나쁜 발음을 더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같은 반 동료는 여러분과 같은 나라 사람이겠지요. 따라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실수를 만들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발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보통 사람"(가게 점원, 버스 기사 등등)과 이야기해서, 그들이 알아들으면, **그땐 자신 있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학습자가 발음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수업에서 통하니까 실전에서도 통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다음 미국이나 영국에 가면,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국에 여행 가서 말이 안 통했다던 톰의 친구 기억하시죠? 그 사람 영어 수업에서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미칼은 영어를 쓰는 두 섬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만 통하면 되니까 발음은 안 배워도 돼."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의사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축하합니다! 아주 큰 진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진 않을 겁니다.

제2단계 발음 수준이라면, 여러분의 영어는 이해할 만은 하지만, 아직도 강한 한국식 억양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글의 첫머리에, 발음은 첫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한국식 억양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여러분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기 좋은 억양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히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할 겁니다**. 여러분과 더 같이 있고 싶어하겠죠. 반대로, 나쁜 억양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을 꺼릴 겁니다(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행히, 연습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은 영어" 발음(간단히 말해, 좋은 발음)을 익힐 수 있습니다. 영어 음운을 공부하고, 음성을 듣고, 영어 방송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고 있죠.

미칼이 이 문제를 더 쉽게 깨닫게 하려고 쓴 글을 읽어보세요.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2 March 2009, at 13:42.

16. 문장 정리법

원문: Sentence items in SuperMemo

> **Q:** He was asleep before I tucked him in.
> **A:** If you tuck someone in, usually a child, you make them comfortable in bed by straightening their sheets and blankets.

문장을 정리하면 어휘와 문법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할 문장을 **질문**에 넣는데, 그 문장에는 최소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합니다(여기서 "흥미 롭다"는 말은, "어렵거나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런 문장은 책이나 사전, TV에서 뽑아옵니다.

답에는 모르는 단어의 정의나 발음을 적습니다(발음 기호). 때로는 빈칸으로 남겨두어도 됩니다.

예

여기서 사용한 정의들 대부분은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s English Dictionary*에서 뽑았습니다.

> **Q:** You're blocking the TV.
> **A:** to block the TV = to obscure it from view

> **Q:** Four users complained of difficulty using the menus, and one was so stymied that I had to help him.
> **A:** If you are stymied by something, you find it very difficult to take action or to continue what

you are doing. (INFORMAL)
stymied ['stai mi(:)d]

Q: He said he'd be there, come hell or high water.
A: If you say that something will happen come hell or high water, you mean that it will certainly happen, in spite of any difficulties that there might be.

Q: Aside from that unfortunate business, everything is hunky-dory.
A: hunky-dory = fine (informal)

Q: And then we're gonna kick back.
A: kick back = relax (slang)

Q: I've got the hots for her.
A: the hots = sexual desire

Q: The astronauts are preparing for touchdown tomorrow morning.
A: touchdown ['t^tS daun]
= the landing of an aircraft or spacecraft

Q: She is an anchor for CNN International's World News.
A: an anchor ['@N k..(r)]
= the main broadcaster on a program of news, sports, etc., who often coordinates the reports of the program's other broadcasters

---

Q: Those not attending the meeting may vote by proxy.
A: If you do something by proxy, you arrange for someone else to do it for you.
proxy ['prok si:]

Q: Over time she internalized her parents' attitudes.
A: to internalize sth [in 'te:(r) n..l aiz]
If you internalize a belief or a set of values, it becomes part of your attitude or way of thinking.

Q: I admire the way she can just shrug off all her problems.
A: to shrug sth off [Sr^g]
If you shrug something off, you ignore it or treat it as if it is not really important or serious.

Q: My boss delegated me to approach the local press.
A: to delegate [ˈde l.. geit]
If you delegate someone to do something, you give them the duty of acting on your behalf by making decisions, voting, or doing some particular work.

Q: There was a shift in the wind.
A: A shift is a slight change from one direction to another.

Q: The mayor has the local police in his pocket.
A: If you have someone in your pocket, they are willing to do whatever you tell them (possibly because you have bribed them).

Q: You are correct that not every family is willing to make that kind of commitment.
A: You are correct that...

Q: He is reasonably near to you -- in Prague.
A: near to you

바로 위의 두 아이템은 "You are correct that..."과 "near to you"라는 문장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답에는 아무 정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 표현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정리할 문장이 하나 이상일 때

질문에 문장이 두 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짧은 문장 두 개가 긴 문장 하나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 am ugly, therefore she cannot possibly love me"라는 문장과 "I am ugly. She cannot possibly love me."라는 문장을 비교해보세요. possibly라는 단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therefore로 문장을 복잡하게 이을 필요가 없습니다.
- 어떤 단어나 문법은 특정 맥락이 있어야만 본 뜻이 드러납니다. 이럴 땐,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장이 필요합니다.

아래 예를 봐주세요:

Q:The restaurant serves only two meals: fish and steak. Most people take the steak.
A:

steak 앞에 the는 지금 말하고 있는 steak가 어떤 건지 알고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문장이 꼭 필요합니다.

Q:All right, I'll let you go in. However, you will have to behave well.
A:

Howere는 문장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 하나만으로는 뜻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Q:- What is he like?
- He's very nice.
A:

결론: 질문에 꼭 문장 한 개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 질문 문장들의 전체 길이는 주의하세요. 질문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금방 지루하고 피곤해집니다.

단순화

질문 문장에 단어가 너무 많거나 문법 구조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많은 문장을 복습해야 하는데, 질문 문장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문장을 줄이기도 해야 합니다. 또는, 문장 하나로 여러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아래 문장을 찾았다고 합시다:

"Days after the earthquake there were still survivors, however it was not possible for the rescue workers to find them."

초보자에게 이 문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는 표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땐, 이 문장을 세 아이템으로 나누는 겁니다:

Q: Days after the earthquake there were still survivors.
A: earthquake ['e:rth kweik] = shaking of the ground
survivor [s..(r) 'vai v..(r)] = someone who continues to live after a disaster, accident, etc.

Q: It was not possible for the rescue workers to find the survivors.
A: rescue workers = workers helping people who suffered an accident, etc.
survivor [s..(r) 'vai v..(r)] = someone who continues to live after a disaster, accident, etc.

Q: There were still survivors, however it was not possible to find them.
A: survivor [s..(r) 'vai v..(r)] = someone who continues to live after a disaster, accident, etc.

첫째 아이템은 원래 문장의 앞부분입니다. earthquake, survivors, days after가 공부할만한 표현입니다.

둘째 아이템은 however 뒷부분입니다. 문장 마지막에 있는 대명사 them을 the survivors로 바꿨습니다(문장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이 문장에는 get to someone, survivors, rescue workers가 공부할 표현입니다. 또, "It was not possible for someone to do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알려줍니다.

셋째 아이템엔 however가 핵심입니다. however 앞과 뒷부분을 단순화했습니다. "days after the earthquake"와 "for the rescue workers"는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however를 강조한 것입니다. however는 따로 정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survivor를 답에서 설명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요.

물론 원래 문장을 변형시킬 때는 잘못된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빈 답

답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빈 답은 질문 문장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때 적당합니다. 이 문장에서 "to find something boring"이라는 표현은 사전을 찾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봐서 이해하기는 쉬워도, 직접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런 경우 답을 비워도 좋습니다.

Q: I find this book boring.
A:

정의와 발음을 입력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비교적 쉬운 문장이라면 정의를 건너뛰세요. 훨씬 빨리 문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장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때 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복습 방법

- 질문 문장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문장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읽을 때는 흥미있는 부분(어려운 부분)에 멈추세요: 새로운 단어, 단어의 쓰임, 문법 구조, 전치사, 관사(a/the) 같은 부분이죠. 멈추고 생각하며 읽기에서 설명한 대로 질문 문장을 읽습니다.

  모니터를 보지 않고, 소리 내 읽거나 속으로 문장을 읽어도 됩니다. 문장이 쓰일 법한 상황 속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말해보는 겁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답에 적어 놓은 설명을 외워서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답에 정리한 내용은 질문 문장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답을 보고 도움을 얻는 것이죠.
- 답을 확인합니다(비어 있지 않다면). 질문 문장을 보고 이해한 어휘와 문법 구조를 답에 적힌 것과 비교합니다. 질문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굳이 답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 정답 수준을 고릅니다. 문장 아이템은 딱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라고 한다면, 문장에 대한 이해도가 되겠지요. 따라서 정답 수준을 고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 5 — 문장을 아주 잘 이해했을 때
  - 4 — 문장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좀 어려웠을 때. 첫 부분에서는 잘못 이해하다가 끝까지 읽고 나서 제대로 이해한 경우. 문장의 시제나 전치사 사용법이 좀 의외여서 직접 만들어 보지는 못할 것 같은 경우.
  - 3 — 이해하기는 했지만, 아주 어려웠고, 어쩌면 조금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때
  - 2 — 문장을 "거의" 이해할 뻔한 경우. 답에 적은 설명을 보고 나서야 "이거였는데!"라고 생각날 때.
  - 1 — 문장을 이해 못함
  - 0 — 문장을 이해 못할 뿐더러, 처음 보는 느낌이 들 때.

대개는 5,4,2,1번을 주로 선택할 겁니다. 3, 0번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참고

영어 공부를 한창 열심히 하던 고등학생 때, 우리는 문장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정의-단어 아이템 뿐이었죠(예문은 답에 넣었습니다). 문장 아이템은 비교적 최근에 생각해냈습니다. 톰이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문장 아이템을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좋습니다.

문장 vs 정의-단어

문장 아이템은 정의-단어 아이템보다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복습이 쉽습니다

뜻-단어 아이템을 복습할 때는, 뜻을 먼저 보고 해당하는 단어를 맞혀야 합니다. 좀 어렵지요. 같은 뜻의 다른 단어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놓은 뜻이 명확하지 않아서 딱 맞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장 아이템을 복습할 때는 그냥 문장이 이해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문장에 맞는 단어의 뜻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뜻을 혼동할 일도 없습니다.

만들기 쉽습니다

단어-뜻 아이템을 추가하려고 할 때, 비슷한 단어가 이미 묶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두 단어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모두 한 아이템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묶음의 다른 아이템까지도 편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문장에는 뜻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추가할 때 다른 아이템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효과적입니다

뜻-정의 아이템은 뜻을 보고 그에 맞는 단어를 떠오려야 합니다. 문제는, 비록 실제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뜻만 보고서 단어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우선, 뜻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너무 일반적이고 분명하지 않아서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아무리 정확하고, 또 그 단어를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더라도, 정의가 요구하는 "꼭 그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의를 봐 주세요:

> a number of pieces of paper fastened together and fixed inside a cover of stronger paper or cardboard

위의 정의를 읽어도 이 내용이 묘사하는 하는 것이 단번에 "책"이라고 떠오르지는 않지요. 원어민에게 이 정의를 보여줘도 마찬가지로 답을 맞히기 어려울 테지만, 그렇다고 그 원어민이 "책"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핵심은, **단어의 정의를 알지 못해도 정확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어민처럼 문장을 읽고 듣는 것으로 그 속에 쓰인 단어의 뜻을 직관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은,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어도, 항상 문장에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단어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다른 단어와 연결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요.

뜻-단어 아이템은 일종의 십자 낱말 풀이입니다. 애써서 풀어도 그 **노력의 대부분은 실전 영어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꼭 필요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반면에, 문장 아이템으로 공부하려면 실전 영어 문장을 읽어야 합니다. 단어를 익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지요. 뜻만 아니라 사용법까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입력에 집중하면 잘못될 여유조차 없습니다.

- This page was last modified on 12 October 2010, at 12:18.

http://www.antimoon.com/wiki/Korean